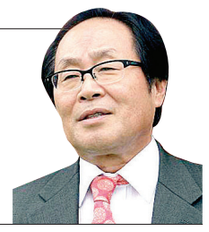
현불논단

올해도 꿀벌은 오지 않았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모락산서 정원을 일구며 산지 30년
2년 전부터 마당에 꿀벌 오지 않아
아인슈타인 "꿀벌 없으면 멸망한다"
이젠 눈 앞 현실된 기후위기 문제들

현재 지구가 병든 원인 인간에 있다
불교 연기법을 일상생활서 적용하는
조안나 메이시의 '재교감 작업' 주목
작고 치밀한 운동으로 사회 변화를

올봄에도 꿀벌은 오지 않았다. 찬란한 봄은 지나가는데 꿀벌님은 2년째 오시지 않는다. 의왕시 모락산 자락에서 조그마한 마당에 나무와 풀을 가꾸면서 산 지가 어언 30년이 넘는다. 다래 꽃이 필 때는 온종일 붕붕 하는 벌꿀의 날갯소리가 마당에 가득하였다. 올해는 꿀벌님이 오시겠지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다. 영춘화를 시작으로 목련, 라일락, 모과, 으름, 철쭉, 목단 그리고 다래에 이어지는 찬란한 봄의 행렬에 꿀벌은 나타나지 않는다. 몇 마리 나비만 스쳐 갔을 뿐이다. 꿀벌 없이 열리는 봄의 축제는 결코 찬란하지 않았고 꿀벌을 기다리는 꽃님들이 안타깝다.

"꿀벌이 절멸하면 인간은 4년 후에 절멸한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한다. 나는 지인들에게 2년 동안 꿀벌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 수명은 2년뿐이 남지 않았다고 농을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으스스하다. 꿀벌의 '사라짐'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꿀벌의 사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궁에 빠져 헤매고 있다고 한다. 꿀벌 사라짐의 문제는 결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커가고 있다. 지구촌에 사는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혁이 없으면 결코 꿀벌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인간이 지금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지구의 아픔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구별은 커다란 생명체이다. 지구의 중생들은 이 지구 어머니의 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크게 병들어 있다.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 다양한 괴질에 시름겨워하고 있다.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인간 자신은 물론 지구별의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급기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희희낙락하고 있다. 달콤한 꿀물에 빠져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틱낫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고성제(苦聖諦)가 바로 연결된다. 고성제는 도성제로 가는 첫 출발지이다.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 깨달음과 자비의 길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새삼 붓다 다르마의 지혜가 다가온다.

붓다의 지혜로 지구별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사는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여사를 소개하고 싶다. 생태철학자로서 불교와 일반체계이론, 심층생태학을 연구한 여성학자로 연구의 결과를 실천하기 위해 50여 년 동안 사회운동을 전개한 분이다. 필자는 그분의 저서 〈불교와 일반체계이론〉을 몇 번이나 열독하면서 공감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안나 메이시는 '재교감(재연결) 작업 (the Work That Reconnects)'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붓다의 연기법을 우리 삶의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Active Hope〉란 제목으로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이 운동은 나 자신과 작은 주변의 공동체를 근거로 하는 운동으로 작고도 치밀하다. 바로 작고도 치밀한 운동으로 대변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기의 작은 바람이 저기의 큰 태풍이 되는 카오스 이론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한국불교는 엄청난 생태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생태적 자산이 거대 담론으로만 소비됐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한국불교는 엄청난 생태교육장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전통 사찰이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꿀벌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한국불교가 지구별을 구하고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의 대장정의 길을 걷는 모습을 그려본다.

社說

'출가서 열반까지' 승려복지 새 시작

2018년 조계종 재무부가 공개한 승려 소임공제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스님은 전체 56%에 달했다. 심지어 600만원 미만인 스님들이 30%가량을 차지했는데, 스님들의 월 소득이 처음 공개된 결과로 세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세부적인 통계는 처음이었지만 종단은 이미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승려복지만이 출가수행자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복지사업 확대를 핵심 종책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치료비 지원 등을 거쳐 교구별 승려복지회가 출범하고, 지난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개원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종단 직영의 요양병원은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표방하는 승려복지제도의 또 다른 시작이자 든든한 한 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이 노후를 보내거나 일반 요양원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종단의 울타리로 품어 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세웠던 故각현 스님, 그 유지를 이어 요양병원을 이끈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그리고 종단 직영을 제안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을 마중물로 이룬 대작불사다.

개원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요양병원 개원으로 "종단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더하고, 나아가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과 전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의료비 부담 없이 스님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함께 뜻을 모을 때다.

청년불자 양성은 시대적 화두

5월 2일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과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이 열렸다. 두 행사에서는 공통된 화두가 있었는데 바로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 활성화'였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건학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상월결사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대 핵심과제에 '청년불자 양성'을 신규 과제로 지정했으며, 합장데이 운영, 공양기도문 생활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향식에서도 자승 스님은 종도감 호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향후 대학생 불자에게 활력을 전해주는 일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역시 치사를 통해 대학생,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다른 종교보다 신도 연령 구조가 취약한 불교에 필요한 것은 대학생과 청년 불자의 확대다. 잘 양성된 대학생·청년 불자들은 청소년 포교 지도자이자 미래 직장직능 포교사이고, 세대전승의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단과 동국대, 상월결사가 '대학생, 청년 포교 활성화'를 화두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원력이 모인 만큼 대학생과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맞춤형 포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학생 불교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들도 활성화 돼야 한다. 청년 불자 양성은 한국불교의 시대적 화두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⑭ 나무를 심은 사람

우린 나무를 심고 있는가

앙드레 말로는 대표적인 20세기 프랑스 작가로 장 지오노(Jean Giono)를 꼽았고, 헨리 밀러는 "프랑스와도 바꿀 수 없는 작가"라고 장 지오노를 칭송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장 지오노의 말년 작품이다.

이야기는 프랑스에 사는 한 젊은이가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피에는 혼자 황무지에 살면서 도토리나무를 심었다.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는데, 나무로 자란 것은 1만 그루였다. 그렇게 34년 동안 나무를 심었더니 황무지는 수십만 그루의 떡갈나무 숲으로 바뀌었고 개울이 흐르고 새가 모여드는 생명의 숲이 되었다. 약 1만여 명이 함께 사는 마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된 부피에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캐나다 사람들은 무려 2억 7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부피에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황무지가 된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부피에가 나무를 심는 것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생태주의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아쇼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치유력이 있는 약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 왕은 그것을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부피에는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선업(善業)의 씨앗을 심고 가꾸었다. 부피에가 심고 가꾼 선업의 꽃과 과실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만여 명의 모든 마을사람에게 주어졌다. 연기(緣起)사상에 입각해 보면 개체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업인 별업(別業)과 전체에 미치는 공업(共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대량폐기를 조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서구문명은 인간을 자연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봤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UCLA의 역사가인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고 단언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느님이 그들(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느님이 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고 하셨다"고 쓰여 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존재라고 보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부피에처럼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